

## 침상노인 환자복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이 연 순\*(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교수)

문 은 희 (감패션연구소 연구원)

환자들의 의복은 일반 피복류와 마찬가지로 보건 위생성, 기능성, 실용성, 관리성, 심미성 등이 요구되며, 부가적으로 질병 종류 및 상황, 환자의 상태, 처치방법 등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들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복은 착용 시에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치료와 간호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근래에는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아졌으며, 노화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의 침상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환자복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쾌적하고 기능적인 환자복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병원규모별 노인환자복의 현황조사, 시장조사 및 착용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병원 규모별 노인환자복의 현황조사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재 종합병원 5개소와 준종합병원 3개소를, 시장조사는 지역의 환자복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연구자가 직접 관찰, 조사하였으며, 착용감에 대한 조사는 지역소재 병원 7개소에 입원 중인 60세 이상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환자복 착용현황 결과, 노인환자복과 일반환자복을 구분하는 병원은 1 개소이며, 나머지 병원들은 미구분하며, 성별구분도 1 개소이고, 환자복 형태는 긴소매의 상하분리형이 대부분이며, 소재는 1개소만 면·폴리에스테르 혼방이며, 나머지는 순면이고, 문양은 병원 마크를 넣은 줄문양이 대부분이며, 상의 여밈은 단추이며, 하의 허리는 줄여밈이고, 치수체계는 대/중 2구분 1개소, 대/중/소 3구분 1개소, 특대/대/중/소 4구분 6개소로 나타났다.
2. 시장조사 결과, 시판·공급되는 환자복 형태는 일반환자용인 상하의 파자마 형태와 산부인과 및 수술용인 원피스형태가 있으나, 별도의 노인환자복이 시판되지 않으며, 소재는 순면이 대부분이나 치매 또는 정신병동에는 내구성이 강한 면·폴리에스테르 혼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착용감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정맥주사 처치, 배뇨관을 사용하는데, 착용환자복이 처치 및 장치물 부착 등에 불편하고, 침상에서 웃웃이 말려 올라가며, 배변 및 착탈에 불편하며, 소재가 “땀이 찜”, “건조가 느낌”, “배김” 등 불편하다고 응답했고, 문양과 색상이 “지겹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상의 단추여밈과 하의 허리의 줄여밈, 상의의 긴소매 등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재 노인환자복이 별도로 공급되고 있지 않으며, 노인환자들이 일반환자복을 착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차기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기능적이고 쾌적한 노인환자복에 대해 연구하여 노인환자복을 설계·제안해 보고자 한다.